

건강 칼럼

임플란트 수명 심으면 끝?... 3~6개월마다 치과 스케일링 받자

세월이 흘러서 까지 비교적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것은 복 중의 복이라고 여겨진다. 치아는 인간의 기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음식물을 씹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연치아는 노화에 따라 잇몸이 퇴축되고, 각종 구강질환 및 전신질환의 합병증으로 치아가 약해져 치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자연치아를 살릴 수 없거나 이미 상실한 경우라면 임플란트 치료가 권장된다. 특히 임플란트가 자연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로 인정받는 것은 그 원리에 있다. 자연치아의 뿌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인공 치근이 잇몸 뼈에 식립되기 때문이다. 치조골과의 단단한 유착에 성공한다면 건강한 임플란트로 사용할



노 현 기
강남구청역 에스플란트 치과병원 원장

수 있다. 또한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 실패 요소가 없다면, 임플란트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 구강 청결에 신경 쓰고, 진료 받은 치과 방문을 게을리 하지 않는 등 이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먼저, 자연 치아를 관리하듯이 인공 치아도 음식물을 섭취한 뒤 꼼꼼

한 양치질이 필수이다. 인공 치아는 씹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자연치아와는 달리 임플란트의 경우 완성 후 잇몸이 다시 차오르지 않아 이를 소홀히 관리할 경우 미세하게 비어있는 공간에 음식물이 지속적으로 고여 임플란트 주위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후 울

바른 칫솔질,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사용하고, 구강세정기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공간에 남은 찌꺼기까지 제거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혼자서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전문의를 통한 꾸준한 검사가 필요하다. 시술 받았던 치과에서의 지속적인 정기검진을 통해 사용 중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3~6개월에 한번씩 스케일링을 받는 것도 좋다. 이처럼 오랜 임플란트수명을 갖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춘 의료진을 통한 완성도 높은 임플란트 시술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청결 관리와 주기적인 정기 체크가 중요하다. 꼼꼼하지 못한 후 관리가 이어진다면, 임플란트수명을 단축시키고 결국 재수술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을을 유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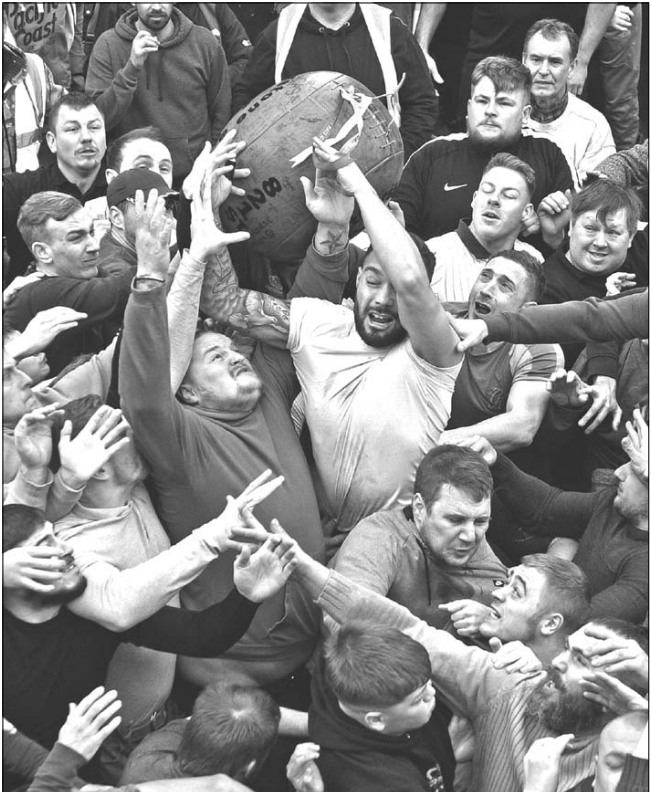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관중에 인사하는 '마르디 그라스' 카니발의 왕



25일(현지시간) 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사순절 카니발 '마르디 그라스'가 열려 카니발의 왕이 행진하며 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공 하나에 “너 죽고 나 죽자”



25일(현지시간) 영국 애더스톤에서 연례 애더스톤 볼 게임이 열려 참가자들이 공 하나에 몰려들고 있다. 이 게임은 1199년 레스터셔와 워릭셔 간의 중세 군중 축구 경기를 재현한 경기로 당시에는 금 주머니를 공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설

전북도와 보건 당국 잘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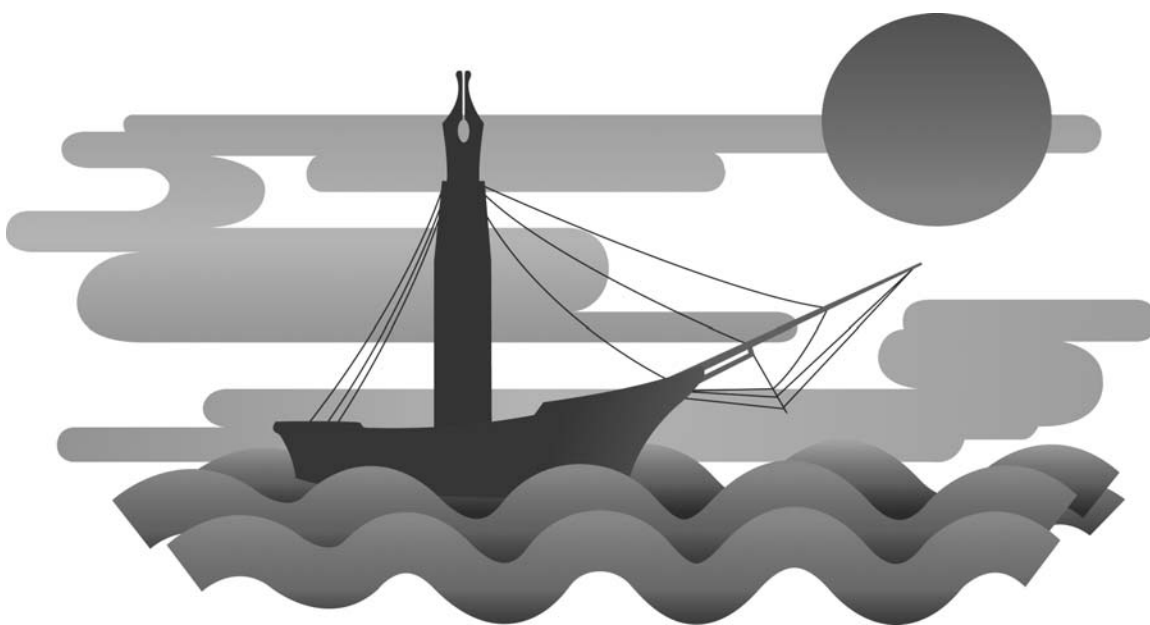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는 이들이 있다. 전북도와 보건 당국 관계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지금 그 누구보다도 긴장하면서 자기 직무에 임하고 있다. 그들이 느끼는 긴장감은 일반인이 느끼고 있는 그것과는 유가 다르다.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하는 이들은 일반 환자를 대하는 일반 의사와는 입장이 다르다. 민반의 예방 조치를 취하고 의심 환자를 대할 터이다. 중국에서 는 진료 현장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이 코로나에 감염돼 죽어 나가는 마당이니까 말이다. 전북도와 보건 당국에게 잘 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이유는 뚜렷하다. 우리 지역에서는 확진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전북도와 보건 당국 관계자들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는 덕분이다. 현장에서 몸을 던져 일하고 있는 그들에게 격려와 성원과 박수를 보내는 것은 마땅한 보답이다. 불안한 중에도 시민들은 일상을 누리고 있으나 그들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다.

실시간대로 방송되는 뉴스를 보고 들으면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이 심상치 않다. 전국적으로 아니 똥민 지역이 없다. 이제 코로나 19는 대구와 경북만의 두려움이 아니게 됐다. 뉴스를 통해 밝혀진대로 서울의 명성교회의 부목사가 확진환자로 드러나고 신천지와 상관이 없다는 부산의 온천교회에서도 환자가 무더기로 속출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행사의 자리에 확진 환자가 참석한 것이 밝혀져 정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여기 다시 말하거니와 전북도와 보건 당국은 지금 잘 하고 있다. 다른 광역 지자체와 비교가 되는 것이다. 그레도 하루 하루 현실은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다. 길거리에는 사람의 통행이 뜸하고 많은 사람들로 붐볐던 시장이나 마트는 쓸쓸한 분위기가 여전하다. 이런 패일수록 도민들은 전북도와 보건당국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 그들의 계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행하는 협조정신이 절실하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자는 호소이다.

지역 발전 현안에도 관심을 가져야

지역 발전 현안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주요 현안들이 꾸벅거리며 졸다가 이제는 아예 잠자고 있는 모습이다. 이대로는 곤란하다. 도내에는 지난해 뜻을 이루지 못한 주요 현안들이 있다. 언제 쯤이나 제대로 추진될 것인지 답답하다. 코로나 19 때문에 경황이 없는 때이지만 그레도 행길 것은 행여야 한다. 코로나 확산 방지에 힘을 쏟는 중에도 할 일은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 다른 할 말이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너와 내가 따로 없어야겠다. 다들 선후후사의 정신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어쩌다 성과를 내면 자기 쪽 노력 덕이라 공치사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지역 발전이 요원하다. 이같은 요구는 그 이유가 분명하다. 문제가 잘 안풀렸을 때는 서로 네 탓 공방을 했었던 까닭이다. 다시 강조해 말하거니와 지역 발전은 전북도만 이끌어 가는 게 아니다. 군산 시민이 정부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데서 알수 있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 정부가 눈길을 돌리도록 해야겠다. 수년 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얼마 전 서울에서 플래카드를 내걸고 요구한 그대로이다. 현대조선소 재가동이 속히 있어야겠다.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내날이다.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이 어렵다면 저번에 말한 대로 짝사랑을 접어야 한다. 전기자동차 생산을 2022년까지 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서둘러야 한다. 지역 발전이 주요 현안이 돼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지역은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들이 다른 광역 시도보다 많다. 전북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지역의 현실을 꼭 넓게 보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수가 없다.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이들은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겠다. 경황이 없는 중이라도 든든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주문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